

Wee

# 위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교사용)



미리보는 위(Wee) 소식

## 목차

### → 전문가 칼럼

- ☞ 학교기반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상담자의 Best Practice 다섯 가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동형

### → 현장의 소리

- ☞ 행복한 마음을 키우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우리의(Wee) '사칙연산'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 현진희
- ☞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  
제천제일고등학교 전문상담사 박경애

위(Wee), 알려드립니다

## 알림

### → 다음 호 소식

- ☞ 위(Wee) 뉴스레터 원고 모집  
-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에서는  
위(Wee)프로젝트의 정책, 운영 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위(Wee)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wee.go.kr](http://www.wee.go.kr)

**대상** 위(Wee)프로젝트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위(Wee) 프로젝트 참여 학생  
및 학부모

**제출방법** [kcm0314@kedi.re.kr](mailto:kcm0314@kedi.re.kr)로 제출

**문의**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김찬미



전문가 칼럼

## 학교기반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상담자의 Best Practice 다섯 가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동형**

학교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사회화의 장이요, 발달의 주요 맥락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응문제를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예방의 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일상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적 성과를 저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서, 사회, 행동 문제를 개입해야 하는 학교상담자들에게 예방의 가치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예방은 현재 학교심리학이나 학교상담 등 학교를 기반으로 심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공히 강조되고 있는 전문적 활동 영역이다. 이는 미국학교상담자협회(ASCA)나 전국학교심리사협회(NASP)의 전문가 실무 모델을 보더라도 자명한데,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개입 방식이 단지 문제가 표출될 때 이에 반응하는 방식, 즉 반응적 서비스(responsive service)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정신건강 및 안녕을 도모하도록 예방적 서비스(preventive service)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이러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시스템에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자와 학교실무자들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더욱이 상담자들을 돕기 위하여 예방 분야의 실증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최상의 실천(best practice)을 안내하는 지침들도 발간되었지만, 이러한 증거 기반의 지침들을 상담 실무에 활용하여 각 학교의 실정과 필요에 잘 부합되는 예방프로그램을 개발, 도입, 적용하는 시도는 아직 많지 않은 듯하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Strein 등(2014)과 Larson 등(2002)의 제안을 참조하여, 상담자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best practice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예방의 구체적 영역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 글에서는 영역 특정한 것보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상담자가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층모형에 기초한 예방의 개념과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표준적 절차를 살펴보자.

통권 67호 2023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 예방의 다층적 개념화와 프로그램 개발

간단히 정의하면, 예방(prevention)이란 명확히 정의된 부정적 결과의 발생률(새롭게 발생하는 사례 수)이나 유병률(현재 존재하는 사례 수)을 감소시키거나,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개입 활동을 의미한다(Strein et al, 2014). 정신과 의사 Gerald Caplan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예방의 개념을 활용한 선구자로 1960년대 초에 처음으로 1차, 2차, 3차 예방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 후 미국의 Institute of Medicine에서도 보편적, 선택적, 지시적 예방의 개념을 제한함으로써 예방을 다층(다수준)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으며 예방적 상담의 기본 틀로 사용되고 있다. 1차 혹은 보편적 예방은 현재 특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활동을 지칭하며, 2차 혹은 선택적 예방은 소위 '위험 집단' 혹은 이미 경미한 형태의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 구성원들을 선별하여 개입하는 예방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3차 혹은 지시적 예방은 이미 문제를 보이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악화나 재발을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층적 관점의 예방 개념은 학교시스템에도 잘 적용되어 예방적 관점에서 학교상담을 개념화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상담자는

통권 67호 2023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먼저 다차원적 예방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다층적 관점을 참조 틀로 활용하여 다양한 수준과 영역의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기반의 예방 활동은 본질적으로 포괄적·통합적·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방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까? Stein 등(2014)은 특정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표준적인 ‘체계적 문제해결 과정’, 즉 (1) 문제 확인, (2) 프로그램 개발 및 선택, (3) 실행, (4) 평가, (5) 정례화의 단계를 따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러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tein 등(2014)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실천 전략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Best Practice 1: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예방적 상담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서 상담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요구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반응적 상담에 익숙한 상담자는 요구조사 자체를 번거로운 절차로 여길 수 있지만, 어떤 필요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혹은 학교 내 특정 요구사항에 반응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나 계획 없이 시작한 예방프로그램은 실패하거나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예방 노력에서 실패 경험은 이후의 예방 노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구조사는 예방이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과 프로그램의 범위를 명확히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예컨대, 상담자가 최근 학교폭력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괴롭힘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 학교 차원에서 괴롭힘의 경험에 대한 간단히 설문지나 일부 학생과의 면담 등을 수행하여 정말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의 프로그램(1차, 2차, 혹은 3차)이 학교의 현재 요구에 가장 잘 부합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특유의 요구, 문화나 가치 등과 일치하는 프로그램이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수용도가 높으며 실제로 충실히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 Best Practice 2: 학교 리더십의 지원을 확보한다.

모든 교육 혁신 노력이 그러하듯이 학교의 상담체계가 반응적 모드에서 예방적 모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리더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학교상담자는 프로그램의 계획,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예방 전문가로서 학교상담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정착시키는 일을 주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수용도와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고려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이나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학내 교육활동과 호환성이 높다면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충실한 실행으로도 직결되므로 결국 성공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예방 효과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찰되거나 측정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예, 결석이나 자각률 감소, 징계를 감소 등)에 초점을 두어 개입하고, 1차 예방보다는 위기 학생을 우선 개입하는 2차 예방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하는 것도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는 유용한 전략으로 권장된다.

### Best Practice 3: 프로그램 도입 후 높은 수준의 실행 지원을 제공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방프로그램은 계획된 대로 충실히 실행될 때만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와 다름이 없다. 더욱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프로그램이 가져올 기준 이하의 성과는 해당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예방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Larson et al., 2002). 따라서, 예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스태프 훈련, 자문 등 꾸준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프로그램 도입 후 제공되는 높은 수준의 실행 지원은 높은 실행 충실도와 성과로 직결되므로 도입 전에 충분히 계획되어야 한다.



통권 67호 2023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 Best Practice 4: 평가 요소를 프로그램 실행 과정의 일부로 포함시킨다.

예방프로그램의 중요한 질적 지표 중 하나는 프로그램 실행 및 성과와 관련하여 얼마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며 그러한 평가정보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성과나 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는 부차적이며, 번거로운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를 포함하여 명시적인 프로그램 평가 요소를 갖춘 예방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훨씬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연구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평가는 단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환류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방프로그램 실행의 일부로써 평가 시스템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모범적인 절차인 것이다.

#### Best Practice 5: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예방프로그램의 내용이 좋고, 효과적이면 그만이지 지속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은 너무 목표가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반응적 프로그램과 달리 예방적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중요한 질적 지표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이다.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는 보통 단기나 단회적 적용을 통해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며 일정 시간의 경과 후에야 의미 있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많은 학교기반 예방프로그램들이 한시적으로 실행되고, 정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위 학교의 독특한 요구나 사명에 잘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지속가능성이 높으며, 학내 다수의 의사결정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프로그램이 구성원들의 소유의식이나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학교 내에 통상적으로 가용한 재정이나 노동력을 초과하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반응적 상담에 익숙한 학교상담자가 예방적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잊지 말아야 할 best practice 전략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반응적 상담의 한계를 경험한 학교상담자라면, 예방은 단순히 바람직한 ‘부가적’ 활동이 아니라 학교상담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전문적 활동이라는 점에 대해 크게 동의할 것이다.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치료적, 반응적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학교는 치료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며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하지 않으면 굳이 미리 나서거나 조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예방은 이러한 습성과 잘 맞지 않는 면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예방은 단지 위기 상황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힘들게 교정하고 치료하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만 강조되어야 할 활동은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고 안녕을 증진하는 것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의 고유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라면, 아직은 잘 닦여지지 않은 예방적 상담의 길도 학교상담자의 역할을 숙고하며 잘 다져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Strein, W., Kuhn-McKearin, M., & Finney, M. (2014). Best practices in developing prevention strategies for school psychology practice. In A. Thomas and P. Harrison (Eds.), *Best Practices in School Psychology VI: Systems-level services* (pp. 137–148).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Larson, J., Smith, D. C., & Furlong, M. J. (2002). Best practices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A. Thomas and J. Grimes (Eds.), *Best Practices in School Psychology IV*(pp. 1081–1097).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현장의 소리

## 행복한 마음을 키우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우리의(Wee) '사칙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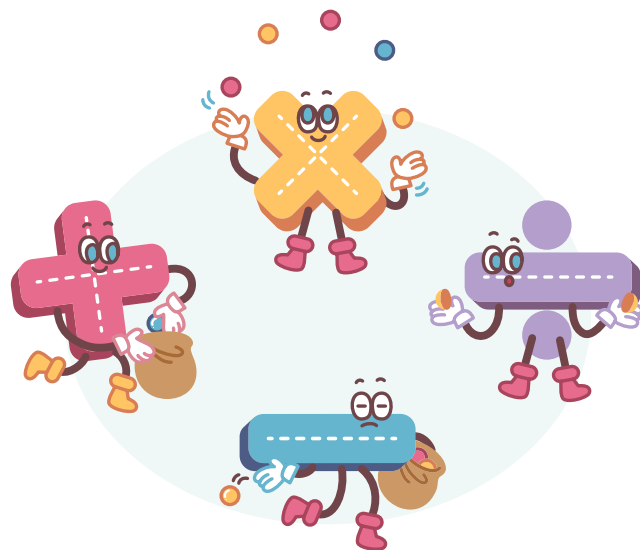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  
**현진희**

### 우리의(Wee) '사칙연산' 운영 계기

인천 남부 위(Wee)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 같은 선물을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해마다 변화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과 정서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와 환류 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창출해 내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의(Wee) '사칙연산' 프로그램을 접하며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그 조건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신념을 심어주어 학교에서 행복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라는 의미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미래 생활을 위해서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권 67호 2023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 프로그램 회차 및 구성 소개

행복한 마음을 키우는 우리의(Wee) '사칙연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친구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전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사칙연산이라는 4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사칙연산'에서의 ▲더하기(+)는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 자신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인 자존감을 향상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빼기(-)는 내면에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인식하여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곱하기(×)는 참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배려하는 정신을 키우며, ▲나누기(÷)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소통의 기술을 함양하기로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4회기로 운영하였습니다

회기	선택주제	목표	활동 내용
1	자존감 향상 더해요 + 나에 대한 존중을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존중감에 대한 의견 나누기</li> <li>열등감에 대한 긍정적 기능 살펴보기</li> </ul>
2		자신에 대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장점을 탐색하고 나누기</li> <li>나를 위한 칭찬과 격려 적어보기</li> </ul>
3		나의 가치관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가치관 탐색하기</li> <li>가치관 경매로 가치관 우선순위 정하기</li> </ul>
4		나를 존중하는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점 포스터 만들기</li> <li>칭찬 카드 친구에게 전달해주기</li> </ul>
1	정서 조절 빼요 - 불편한 감정을	감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 빙고를 통해 감정의 다양성 이해하기</li> </ul>
2		감정 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을 캐릭터로 표현하기</li> <li>감정 온도계 활동지로 감정 표현해보기</li> </ul>
3		감정 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 일기쓰기</li> <li>감정 안정 가방 만들기</li> </ul>
4		감정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만의 스트레스 조절법을 찾고 함께 공유하기</li> <li>나비포옹 배우기</li> <li>스트레스 소책자 만들기</li> </ul>
1	공동체 역량 강화 곱해요 × 함께하는 마음을	자신 및 타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소개로 나와 동료 이해하기</li> </ul>
2		대인관계 유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밸런스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기</li> <li>미니 벽화 만들기로 즐거운 순간 나타내기</li> </ul>
3		협동심 및 응집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든벨 게임으로 응집력 향상하기</li> <li>이어 그리기 게임을 통해 협동심 증진하기</li> </ul>
4		강점 발견 및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듣고 싶은 말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기</li> <li>칭찬 당연하지로 친구의 강점 파악하고 나누기</li> </ul>
1	대화기술 향상 나눠요 ÷ 공감과 경청을	감정 자각 및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생각·감정·행동 구분하기</li> <li>감정표현 맞추기 게임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 인식하기</li> </ul>
2		경청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단어 라이어 활동을 통한 경청의 중요성 알기</li> <li>경청을 위한 자세를 배우고 효과적인 경청법 익히기</li> </ul>
3		공감의 이해 및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청 체크리스트 활용과 복습하기</li> <li>공감 반응을 학습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연습하기</li> </ul>
4		대화기술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프라인의 곤란한 상황에 적합한 표현 연습하기</li> <li>온라인의 곤란한 상황에 적합한 표현 연습하기</li> </ul>

## ‘사칙연산’에 대한 후기 및 효과성



통권 67호 2023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행복한 마음을 키우는 우리의(Wee) ‘사칙연산’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항상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교과 수업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 지루해하거나 집중을 못하는 학생 한 명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이 같이 이루어져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할 기회를 가지며 뭔가를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보람된 것은 학생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배운 것을 바로 친구들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조망수용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여 바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의기투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함께해 주신 위(Wee) 센터 선생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마음을 키우는 우리의(Wee) ‘사칙연산’ 프로그램 운영을 ‘의미 있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항상 매진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



제천제일고등학교 전문상담사  
박경애

###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 취지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은 지난 7월 행사였던 ‘친구야, 사랑한 day!’ 운영으로 기획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친구야, 사랑한 day!’는 대부분의 학교가 ‘친구 사랑 주간’으로 매년 운영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참여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참신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천제일고등학교(교장 김경태)는 남녀공학 인문계고입니다. 여학생이나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교보다 더욱 다양한 또래 관계들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청소년기는 친구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친구들을 통해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친밀한 친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흥미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즐거운 감정과 느낌을 자극받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관찰되듯이 ‘절친’이라는 명분으로 서로에게만 집중된 관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친한 무리가 형성되면 다른 새로운 또래에게 그들만의 경계를 허물지 않거나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암묵적인 관계 패턴들이 적잖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반면 친한 친구나 무리를 형성하지 않고, ‘두루두루 친하다.’고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누구와도 일상이나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않고 혼자이기를 자처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 방향성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양한 또래 관계 패턴을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운영 목적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로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 참여로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향상한다.’. 두 번째 ‘주어진 활동을 통해 나에게 의미 있는 친구를 생각하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 ‘새로운 또래 관계 영역의 확장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통해 학업과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을 이완하여 또래 간의 갈등 상황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인다.’입니다.

위의 목적 이외에도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것은 도입에 언급한 것처럼 ‘최대한 많은 학생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또래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보면 대부분 무리가 형성된 또래들의 강한 동조성과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의 학생들 참여 비중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친밀한 또래가 없는 학생들은 어떠한 좋은 취지와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일지라도 혼자서 참여하는 용기를 내거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들을 보게 되었고, 다른 학교의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비자발적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통권 67호 2023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 세부 내용 소개

프로그램 내용을 기획하고, 제목을 정하는 것에 상당 시간 고민하였습니다. 인문계고 특성상 수업과 시험의 비중이 높아서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매우 많기에, 프로그램 진행 공간을 학교 내 실내로 제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천제일고등학교는 매우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교정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나마 쾌적한 공기와 환경을 누리면서 활동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전교생이 어린 시절 많이 했을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 푸른 교정을 누비는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추진하게 되었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저에게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보물찾기’라는 흔한 제목보다 프로그램 기획의 의도와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라는 개념에 단어가 의미하는 뜻 이상의 무언가 특별하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하고 가장 귀한 ‘보물’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숨겨진 보물 같은 친구들을 찾아서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제목을 ‘보물 같은 친구 찾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솔리언 토래상담 동아리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세부 추진 내용과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추진 내용	세부 내용 및 진행 방법
1	일정	• 점심시간
2	장소	• 교정 및 위(Wee) 클래스
3	대상	• 전교생
4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운동장 현수막 게시 학교와 학급 게시판 홍보지 부착 및 홍보 활동</li> <li>• 보물찾기 선물 준비</li> <li>• 다양한 친구 유형 적은 보물찾기 종이 만들기(A4 색상지)</li> <li>• 행사 전날 방과 후에 교정에 보물찾기 종이 숨기기</li> </ul>
5	참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 지정된 장소에 가서 숨겨진 보물 종이 찾기</li> <li>• 보물찾기 종이에 제시된 친구를 찾아서 마음을 표현하기</li> <li>• 보물 친구와 함께 위(Wee) 클래스 방문하기</li> <li>• 보물찾기 종이 제시하고 확인받기</li> <li>• 원하는 선물(간식) 받기(1인 1개)</li> </ul>

보물찾기 종이에 제시된 친구 유형은 60가지 정도였으며, 내용을 먼저 몇 가지 소개하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 친구 ▶외로울 때 먼저 다가와 준 친구 ▶나에게 늘 힘이 되는 친구 ▶좋은 에너지로 나를 항상 웃게 만드는 친구 ▶친해지고 싶은 친구 ▶언제나 묵묵히 곁을 일을 도맡아 하는 친구 ▶늘 겸손한 친구 ▶반에서 가장 조용한 친구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쿨한 친구 ▶말만 하면 뽕뽕 터지는 개그맨 같은 친구 ▶마음이 따뜻한 친구 ▶친하진 않지만 자주 인사하는 친구 ▶배려심이 많은 친구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나서서 해주는 친구 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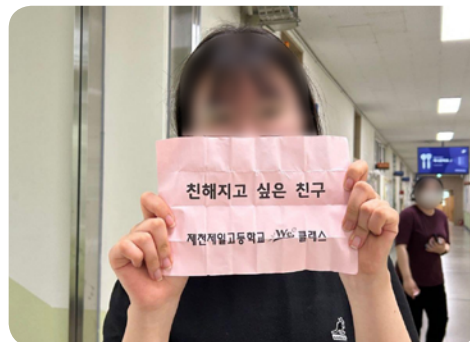
통권 67호 2023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솔리언 또래상담자에게 보물찾기 종이를 제시하고 확인받으면, 개인상담실에 준비된 선물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물은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컵라면' 종류로 다양하게 350개 정도 준비하였고, 1인당 1개의 선물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물 종이를 찾은 학생과 제시된 내용의 친구로 지명된 학생 둘 다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지목한 학생이 이미 다른 학생에게 먼저 지명되었다면, 새로운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학생에게 먼저 지명받은 상황이라도 내가 찾은 보물 종이의 친구를 찾아와서 그 친구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프로그램 후기 및 효과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전교생 520명대 인원 중에서 300명 이상이었으며, 일부 교직원들도 호기심으로 흥미롭게 참여하였습니다. 원래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첫날에 준비된 선물이 거의 다 소진되어 하루 만에 행사를 마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점심시간에 진행되었고, 학년별로 배정된 급식 시간 전후로 많은 학생이 보물이 숨겨진 장소로 이동하여 보물 종이를 찾는 매우 역동적인 광경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제시된 친구를 찾아 Wee 클래스에 오면서 복도에까지 긴 줄을 섰고, 함께 온 친구와의 왁자지껄한 대화로 가득 차서 평상시보다 더욱 생동감 넘치는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참여할 때 원하는 선물을 획득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매우 진지하게 행복한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후에 받는 선물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는 학생들로 매우 부듯했으며, 저와 솔리언 또래상담자들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평상시 친밀했던 친구들 간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짐으로 학교생활에 활력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며, 친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고의 확장과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즐겁게 참여하면서 학교생활에서의 학업 스트레스와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불편감의 해소와 완화로 회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거나 매우 수동적인 학생들이 또래의 보물 친구로 지명되면서 새로운 또래 관계 영역 확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통권 67호 2023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위(Wee) 클래스라는 공간에 대한 저의 평상시 가치관은 ‘모든 학생에게 열려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고, 쉬었다 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위(Wee) 클래스를 전혀 방문하지 않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위(Wee) 클래스는 상담을 위해서만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보물 같은 친구 찾기’ 프로그램 이후로 ‘사탕 가져가기, 보드게임을 하거나 빌려 가기, 소파에 앉아서 쉬었다 가기’ 등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더욱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생들의 방문과 함께 혼자 오는 학생들보다 또래들과 무리를 지어서 오는 모습들도 많이 관찰되어 집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는 새로운 학생들의 방문이 많아지고, 상담사와 친밀함이 쌓이게 되면서 개인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자 효과이기도 합니다. 위(Wee) 클래스라는 공간이 학업과 또래 관계 등 개인 내적인 또는 외적인 요인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편감들을 언제든지 편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은 저의 바람이자 모든 위(Wee) 클래스 선생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보물 같은 친구들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 가며 청소년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친구가 주는 행복감들을 만끽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